

경제

지역 부동산의 굴욕

광주 대형 영화관 4곳 잇단 경매 유찰

‘하미시네마’ ‘첨단롯데’ 등 수백억대 매물 투자자 외면

덩치 큰 데다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 용도 전환 어려움

영화산업의 침체로 문을 닫은 광주 대형 영화관들이 줄줄이 경매시장에 부쳐지고 있으나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부동산경제전문업체인 이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나온 광주 지역 복합영화관은 4곳으로 감정가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른다.

북구 하미시네마는 4만1천248㎡의 면적에 10개 상영관을 갖춘 대형 복합상영관으로, 매물로 나온 뒤 6차례 유찰되면서 여지껏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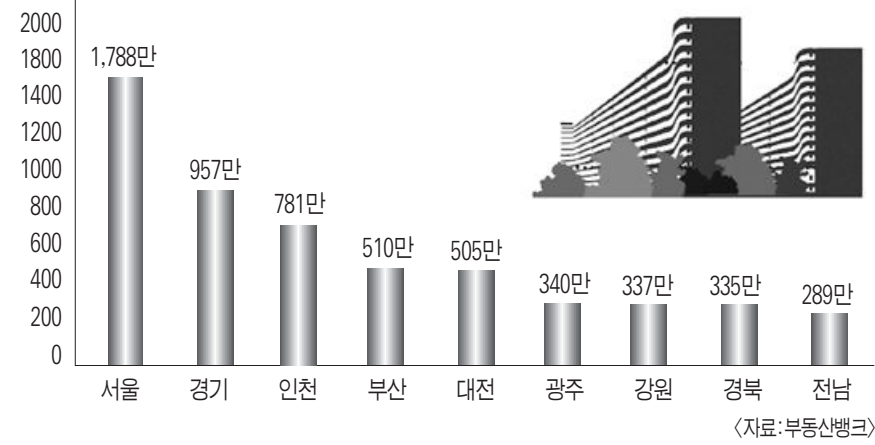
심을 보이는 투자자를 찾기 힘든 상태다.

광산구 쌍암동 롯데시네마 첨단 광주점도 7차례나 유찰되면서 감정가 170억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억1천951만원 수준에서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옥옥션측은 “올해 19개 대형 영화관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중 광주는 4건으로 가장 많다”며 “매수자가 제한적이거나 철거 비용 등이 많이 들어 헐값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시·도별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



전남 아파트 6채 팔아 서울 1채도 못사

3.3㎡당 서울 100만원 오를때 지방 10만원 그쳐

수도권 - 지방 부동산 가격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전남 아파트 6채를 팔아도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동안 서울아파트 값은 3.3㎡당 100만원이 올랐으나, 지방은 1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는 26일 전국 16개 시·도별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전남아파트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1천788만원인 반면, 전남은 289만원에 그쳤다. 무려 1천499만원 차이다.

전남의 아파트 값은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광주도 340만원에 불과해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957만원), 인천(781만원), 부산(510만원), 대전(505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연초부터 꾸준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1년 만에 5.95% (3.3㎡당 1천688만→1천788만원) 상승하는 등 회복세다.

최근 5년 간의 변동률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서울은 무려 47.52% (3.3㎡당 212만→1천788만원) 상승한데 비해 경기와 인천을 제외한 광주·전남 등 지방은 18.32% (3.3㎡당 360만→426만원) 오른 게 고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경기 벌써 ‘주춤’?

소비심리 이어 기업 경기지수도 꺾여

소비자심리지수가 8개월만에 꺾인 데 이어 기업들의 경기지표도 하락하는 등 잘 나가던 지역 경제지표가 주춤거리고 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11월 들어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SI)가 8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이는데 이어 기업들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했다.

한은이 매출액 20억원 이상 319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제조업 업황 BSI는 94, 비제조업이 73으로 각각 전월보다 3포인트와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매출·채산성 등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매출 BSI(96→94), 생산 BSI(98→95), 신규수주 BSI(101→99) 등이 전월보다 모두 2~3포인트 내렸다.

12월 기업경기전망 BSI도 제조업은 석유화학 업종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87에서 90으로 3포

인트 상승했지만 비제조업은 86에서 77로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광주지역 기업 CEO들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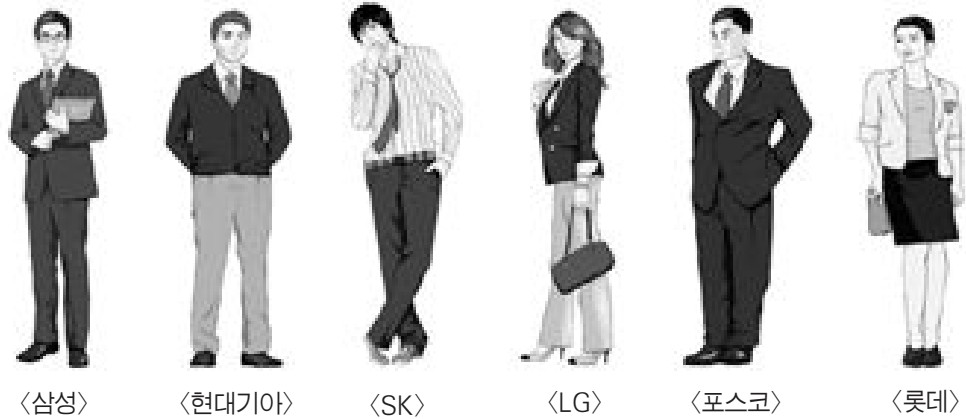
광주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2010년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 지수’에서도 경기전망 BSI가 103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분기 114.4분기 119로 상승세를 보이다 3분기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향후 경기전망을 보면 제품 판매 가격(93), 제품 재고(98), 원재료 구입가격(54), 경상이익(79), 자금사정(84), 설비투자(98) 등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올 들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급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3개월이나 3분기 연속 지표가 하락하지 않아 추세전환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학생이 본 6대 그룹 사원 이미지는



‘삼성’은 30대 초반 자적인 전문직 남성, 현대·기아차는 30대 후반 권위적 남성’.

대학생들이 삼성, 현대·기아차라는 기업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가,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6일 대학생 1천227명을 대상으로 의인화 기법을 사용해 ‘국내 주요 6대 그룹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은 삼성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외모로 30대 초반의 둥근 얼굴형을 가진 남성을 연상했다.

고 옷차림은 유행을 타지 않는 정장차림의 전문직을 떠올린 응답자가 많았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이미지는 권위적인 30대 후반 남성이 연상됐다. 권위, 강인, 대박 등의 단어가 어울리는 근육질 체형, 사각형 얼굴을 가진 30대 중후반의 생산직 남성이 연상됐다.

SK는 세련되고 유행에 민감한 도시적인 30대 초반의 남성이 연상됐다. 보통 키와 체격에 계란형 얼굴,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캐주얼 차림을 한 판매서비스직 남

성이 SK의 이미지였다. 포스코 사람들은 6대 그룹사 중 연령이 가장 높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질 체형과 사각형 얼굴에 유행을 타지 않는 정장차림의 40대 초반의 생산직 남성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LG와 롯데는 여성적인 이미지였다. 두 회사 모두 166~170cm의 키에 트랜디한(유행을 좇는) 정장을 입은 판매서비스직 여성이 연결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점유율 1위

올 누적 판매 35.9%

삼성전자의 지열 아삭 김치냉장고가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5일 시장조사기관 GfK 코리아에 따르면 삼성 지열 아삭 김치냉장고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금액과 수량 기준으로 모두 35.9%의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지열 아삭 김치냉장고는 삼성광주전자에서 생산된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올해 누적 판매량은 작년보다 4% 가량 상승했고, 역대 최대 매출 기록도 경신할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김치냉장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고속 탄소인증 취득

금호고속은 26일 “육상 운송업체로는 처음으로 환경부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탄소성적표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인증한 것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국내 운송업체에서 전 노선에 대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inancial summary box with icons and text: 코스피지수 1,599.52 (-12.36), 코스닥지수 473.82 (-2.74), 금리 (국고채 3년) 4.20% (-0.05), 원·달러 환율 1,155.30원 (+2.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aet Korea (에셋코리아)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Suwan Medical Center (수완 메디컬 센터) listing services like plastic surgery, dermatology, and general medicine.

Advertisement for Daehyung Real Estate (대인동삼일부동산) offering real estate services and property listings.